신짜오 베트남
XinChaoVietnam DAILY NEWS
씬짜오 베트남은 전자판으로 매일발행됩니다.
2023.02.20 (Electronic Edition No 445)
기사제공 및 광고문의 T. 079 283 2000 | E.info@chaovietnam.co.kr

베트남, 1월 CPI 4.89% 기록

작년 9월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베트남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소비 둔화로 1월 정점을 찍고 이달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CPI는 지난해 2월 1.42%(연율)로 최근 수년새 가장 낮은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4.89%까지 올랐다. 특히 1월 근원물가(농산물, 연료비 등 변동성 큰 품목 제외)는 5.21%였다.국립경제대 팜 테 안(Pham The Anh)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1월에 정점을 찍고 이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연내 3~3.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베트남의 CPI는 3.15%로 동남아시아 평균 7.85%보다 훨씬 낮은 안정세를 보였다.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전이해, 일부 선진국은 이미 정점을 찍은 반면 개도국은 이제 정점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ACB증권은 "최소한 상반기에는 물가 급등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3~4.5% 범위 에서 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정부의 목표치는 4.5% 이내다. 이처럼 인플레 전망치가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소비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이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1월 소매 · 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8.1% 수준에 불과하다.안 교수에 따르면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소비를 끌어내렸고, 고금리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또한 지난해 통화량 증가세가 전년의 11~15%에서 4% 이내로 둔화되는 것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여기에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고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 ACB증권에 따르면 OPEC 회원국의 올해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0.8% 증가한 일 3437만배럴, 비OPEC 국가는 0.7% 증가한 6630만배럴로 전망된다. ACB증권은 "미국도 올해 하루 44만배럴을 더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런 데이터를 통해 연료가격은 올해 상반기에 안정되고 CPI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0)

경기침체 실물경제로 옮겨가나? 호찌민시 최대 고용업체 포유엔베트남, 최대 10% 감원

호찌민시 최대 신발제조업체이자 가장 큰 고용주인 대만기업 포유엔베트남(Pou Yuen Vietnam)이 수출주문 급감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전체 직원의 최대 10%인 5000명가량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인사이드비나지가 보도했다. 포유엔베트남은 19일 공지를 통해 계약업체인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등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난해말부터 신규주문을 줄이거나 취소하면서 어쩔 수 없이 20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계약업체들과 물량 조절 등을 논의했지만 주문 감소로 인한 감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포유엔은 현재 5만5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호찌민시 최대 고용업체다. 포유엔베트남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되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무년차당 0.8개월치 기본급 지급을 노동조합과 합의했고, 모회사인 대만 포첸그룹(Pou Chen Group)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례로 거의 20년을 근무한 응웬 티 투이(Nguyen Thi Thuy, 39세)씨는 1억6000만동(6720달러)의 위로금을 받게 된다. 투이씨는 "저는 인근 롱안성(Long An)에 있는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신청할 계획으로 사회보험료도 모두 인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유엔측은 또한 1~3년차 근로자 약 3000명과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미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약 5000명이 감원되는 셈이다. 포유엔베트남은 코로나19 타격으로 2020년 6월에도 2800여명을 해고한 바 있다. 당시 위로금은 근무년차당 1개월치 기본급이었다. 세계경제 둔화로 남부지방의 많은 기업들이 신규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호찌민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해고자 6300여명을 포함해 근로자 11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특히 섬유 · 의류 · 신발 등 특정 부문은 주문량이 40%, 주문액은 20%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고용시장은 한파가 예상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0)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 비자면제 EU '모든 국가로 확대 요청'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 (EuroCham · 유로참)가 베트남 정부에 관광시장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EU(유럽연합) 모든 국가로 비자면제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유로참은 최근 내놓은 연례 백서에서 "베트남 관광산업은 중국과 한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EU모든 국가로 비자면제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베트남에서 장기 휴가를 원하는 유럽 상류층에 대해 3개월 또는 6개월 비자면제를 허용하는 것을 베트남 정부가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안하며, 베트남이 국가를 홍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함께 유럽에 관광총국 사무소를 열어 관광홍보와 국내외 관광객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베트남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5개국에 대해서만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로참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중인 비자면제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을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비자면제국 확대와 외 전시회 · 투자포럼 · 무역포럼과 같은 특정 목적에 대한 단기 비자면제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외국인전문가에 대한 비자정책 완화를 재차 촉구했다. 유로참이 작년 4분기 회원기업 1300여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47%가 비자정책이 완화되면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유럽기업들은 '행정절차 장애물 제거(70%)', '인프라 개선(53%)'을 비자정책보다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장 자크 보플레(Jean-Jacques Bouflet) 주베트남 유로참 부회장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해지면 외국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베트남을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유로참 백서는 베트남 정부에 청원할 주베트남 유럽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한 책이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0)

FLC그룹, 22일부터 비상장 주식시장(UPCoM) 거래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 으로 20일부로 호치민증권거래소(HoSE · 호세)에서 상장폐지되는 부동산대기업 FLC그룹(증권코드 FLC)이 결국 비상장주식시장(UPCoM · 업콤)에서 거래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0일 보도했다. 베트남증권예탁원(VSD)은 FLC 주식 약 7억1000만주가 오는 22일부터 업콤으로 이전 승인됐다고 19일 밝혔다. VSD에 따르면 FLC는 업콤 상장기업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어 규정에 따라 거래시스템에 등록된다. 현행 증권법에 따르면 업콤 상장회사는 출자자본금이 300억동(126만달러) 이상이고, 대주주가 아닌 100명 이상의 투자자가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합자회사이거나, 국가증권위원회 등록으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주식을 공개한 회사로 규정된다. 곧 FLC는 자본금이 7조999억동(2억9810만달러), 주주가 6만4700명 이상으로 업콤 상장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지난 13일 FLC는 호세 상폐가 결정되었다. 이유는 심각한 정보공개 의무 위반으로 투자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FLC는 작년 9월초 ▲정기주총 미개최 ▲2021년 감사보고서 미제출 ▲2022년 감사법인 미지정 등 일련의 정보공개 규정 위반으로 거래정지됐으며, 이들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자 결국 상폐에 이르게 된 것이다. FLC측은 상폐 결정 발표 직후인 14일 공시의무 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로드맵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규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드비나 2023.02.20)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한주필 칼럼

고수와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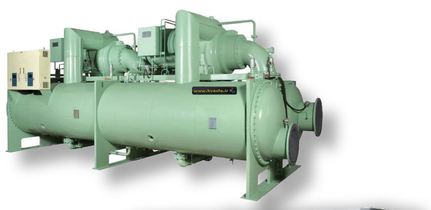
골프를 하수와 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고수와 치는 게 좋습니까?
실력은 차치하고 좋은 사람과 치는 게 좋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동반자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결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결에 대한 얘기 말고 단순히 골프 동반자로 고수가 좋은가, 하수가 좋은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고수와 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수와 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어느 유튜브에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공감이 가는 터라 그 영상을 참고하여 제 의견을 적어 봅니다.
하수와 치면 스트레스를 덜 받기는 하지요. 자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고수라는 입장에 서니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 느낌보다 더 깊은 자책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은 하수와 치면 성적이 더 나빠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수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수와의 게임은 좀 편한 기분이 들며 긴장감이 높지 않으니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고수와 라운딩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골프에 대하여 한 수 배운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점을 고수를 통해 발견합니다. 고수의 스윙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필드 매니지먼트를 배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프에 들어갔을 때 레이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린을 놓쳤을 때, 짧은 어프로치 할 때의 자세나 클럽 선정 등을 배웁니다. 그 외에 매너, 에티켓, 골프룰 등을 배웁니다. 하다못해 캐디를 상대하는 자세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지 않는 편이 좋은 고수도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취사선택하시길. 그런 저급한 고수에게는 타산지석의 자세로 내가 고수가 되면 저런 일은 하지 말자고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프에 대한 열의도 커지고 목표도 생겨납니다.
내 스윙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홀 아웃할 때는 꼭 한 두 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연습의 목표가 생겨납니다. 골프 좀 친다고 행세하는 고수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면 나도 얼른 공을 잘 쳐서 그 산을 넘어보자는 열의가 피어납니다. 고수라고 청하지도 않은 레슨을 일방적으로 하지만 하수라는 죄수복을 입은 탓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나겠다며 연습장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내기 돈을 과다하게 지불한다는 기분을 감수해야 하는 하수 노릇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세 번째는 골프 라이프의 네트워이 넓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쳤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골프 친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수와 골프를 치면 자연히 그 고수를 통해 고사양의 골프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골프의 인적 네트워도 좋아지지만, 골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밝아집니다. 다른 골프장의 특징이나 각종 정보를 비롯하여, 골프 장비나 의상 등에 대한 상식도 늘어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골프 트랜드에 대한 상식이나, 타 지역의 동향도 파악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골프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수들과 어울릴 때 접근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는다면, 고수와 치는 게 실력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의도 늘어나고 목표도 생기니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와 주로 어울리면 명랑 골프를 즐긴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실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뭐 이 나이에 실력이 늘어 뭐하겠어 하시는 분은 구태여 선택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선택할 기회가 된다면 가능하면 고수와의 라운딩을 선택하시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골프 라이프를 위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4명이 한 조를 이뤄 라운드를 도는데, 한 명이 탁월한 고수인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수는 자기 욕심대로 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프의 가장 큰 덕목인 겸손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핀이 그린 왼쪽 끝에 결려 있다면, 아무리 고수라 해도 그린 중앙을 보고 치는게 정상인데, 비교가 안 되는 하수와 치게 되면, 이럴 때 한번 쳐보지 하며 핀을 보고 위험한 샷을 날립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핀에 붙으면 으쓱한 감정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마추어는 고수라 해도 그린을 벗어납니다. 하긴 그래도 고수의 경우 어프로치로 붙여 파를 기록하는 확률이 높겠지만, 그것을 배운 철없는 하수는 혀를 차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원칙에 어긋나는 시도를 배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무엇보다 고수와 공을 치면 얻게 되는 가장 유익한 점은 아무래도, 골프 저변이 넓어지고 골프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가 밝아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가능하면 지혜롭고 우월한 자와 교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골프뿐만은 아닐 듯 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졸 흐르는 냇물보다, 넓고 깊은 물가에서 놀아야 좋은 고기를 잡을 확률이 커지는 것 아닐까요?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Vina-Century
WWW.VINACENTURY.VN
냉동기 납품 세관 설치 전문회사
VN-CENTURY
착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베트남 센추리 공식 대리점



주요 사업 분야
터보·스크류 냉동기
공기 조화기
대형 에어컨
항온 항습기
냉각기
클린룸
저온 창고
덕트.배관 설비 등

주요 실적
경남 랜드마크 공기 조화기 납품
롯데 호텔 터보 냉동기 / 냉각탑 세관 및 설치
하노이 방송국 터보냉동기 오버홀 및 세관
삼성전자 타이응엔 공장 터보 / 스크류 냉동기 반입 및 설치
베트남 한국대사관 공기 조화기 납품 및 시운전
동나이 효성공장 터보 냉동기 수리 및 오버홀
하이퐁 빈페스트 공기 조화기 시운전
한양 디지텍 공기 조화기 설치 및 시운전

하노이 본사 VINA-CENTURY.,LTD
Số nhà 37, trục số 1, Đường Trần Thái Tông, Tổ 41, Phường Dịch Vọng, Quận Cầu Giấy,TP Hà Nội
TEL : 043-555-3646
KR : 098 591 5091
038 777 0621
VN: 098 491 3986

호치민 지사 VINA-CENTURY.,LTD
C8-62 Khu đô thị DTA, Xã Phước An, Huyện Nhơn Trạch, Tỉnh Đồng Nai, Việt Nam
TEL : 025-1257-2007
KR : 098 591 5091
033 850 4395
VN: 098 491 3986
Kakao Talk
vncentury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광고 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I T. 028.3511.1075/1095

신짜오 베트남 XIN CHAO VIETNAM
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국방장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없었다" 법원 1심 판결 부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나온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단과 관련해 "국방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장병들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된 것은 전혀 없다"며 "국방부는 거기(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당시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한국군 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한국군)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며 "당시 미군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추후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파월 장병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때인 1968년 2월12일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74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며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이날 국방위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국방부에 항소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공식 전시보고서인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보고서는 '누가 퐁니에 갔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고 결론을 냈다. 결론적으로 국군의 개입 사실에 대해 '없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증인과 원고 측 진술 역시 원고 측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일부 정치세력은 베트남전 참전 당시 국군에 대한 의혹을 일본 강점기 하 우리 민족에 대한 수탈과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진실 규명을 통해 월남전 참전자들의 명예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제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베트남을 방문해 "마음의 빚" "유감" 등 표현으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과의 뜻을 에둘러 나타냈지만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경향신문 2023.02.17)

빈패스트 "미국공장 설립 환경허가 획득" 1단계 공사 시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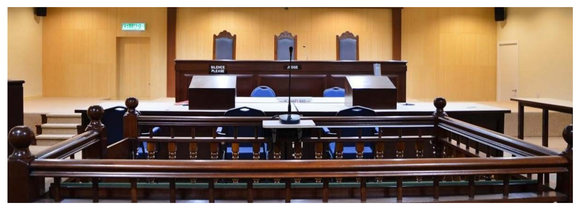
빈패스트가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한 환경 허가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빈패스트는 전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당국으로부터 환경 관련 허가인 '에어 퍼밋(Air Permit)'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한 1단계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 당국으로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한 다른 허가도 얻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부연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국에 따르면 빈패스트는 작년 12월에 해당 허가를 신청해 이달 9일 승인을 받았다. 빈패스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연산 15만대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워 2024년부터 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최소 40억 달러(약 5조2천억원)로 추산되는 미국 공장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패스트는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의 자동차 브랜드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작년 8월부터는 가솔린 모델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만 생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8)

마약밀매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하띤성 마약운반 라오스 남성 사형선고

100만동(약5만4000원)을 벌기 위해 3kg의 마약을 운송한 라오스 남성에게 베트남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17일 베트남 중부 하띤성 인민 법원은 케타민 1kg과 암페타민 7000정을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운송한 혐의로 A씨(28,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Vnexpress지가 20일 보도했다. 하띤성 국경수비대와 세관은 지난해 8월 16일 라오스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카우트레오 국경 게이트에서 A씨의 차량을 검문하던 중 차량 뒷좌석이 개조된 흔적을 발견했다. 국경수비대가 뒷좌석의 차량 덮개를 제거하자 그 밑에 찻잎 주머니에 덮여 있던 다량의 약들을 발견했다. 케타민 1kg과 암페타민 7000정으로 시가 10억동(약 546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라오스에서 낯선 사람이 하띤성 옆에 있는 응에안성의 한 사람에게 물건을 운반하면 100만동(약5만4000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매가 가장 활개치는 지역이다. 베트남 법원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암페타민 2.5Kg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수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 또한 헤로인 100g이나 기타 불법 마약 300g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사형에 처한다. (Vnexpress 2023.0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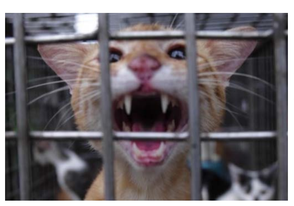
천인공노할 범죄..... 미성년 딸 성폭행 혐의로 남성 징역 17년 선고



베트남 중부 지방의 Gia Lai 인민법원은 금요일 미성년자인 딸을 세 번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0세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Tuoitrenews가 18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Gia Lai인민법원은 가해자인 40세의 Ly Van Sung에게 벌금 또한 선고했다. 범인인 Sung은 아내와 큰 아들이 집을 나간 뒤 2017년부터 당시 9살이던 그의 딸과 K' Bang구에서 살았다고 한다. Sung은 2022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으며, 처음 두 차례의 성폭행은 13세 미만의 나이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이 아이에게 이상 증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간 것은 2022년 5월이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검사를 맡은 후의 결과는 소녀가 임신 22주차라는 결론을 받고, 여성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Sung은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k' Bang구 경찰서에 가서 범행을 자백했다. 2022년 9월 11일 결국 Sung의 딸이 아들을 낳았고 DNA검사 결과 Sung과 DNA과 일치했다.

(Tuoitrenews 2023.02.18)

동탑성 식용 '고양이 공장' 적발



죽은 고양이 4톤과 살아있는 고양이 480마리가 남부 동탑성의 한 도살장에서 적발됐다고 Vnexpress지가 17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대량의 고양이 고기들이 불법으로 냉장 보관 중이었고, 도살장은 위생 증명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살장의 한 관계자는 "고양이들은 메콩삼각주의 여러 지역에서 구입됐다" 면서 "도살된 고양이들은 베트남 북부로 운송되어 전통 의약품의 약재로 쓰인다" 고 밝혔다. 고양이 한 마리의 무게는 평균 2kg으로 현재 이곳에 남아 있는 고양이 고기는 2000마리에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살아있는 고양이들은 판매 목적으로 호찌민 시내로 유통된다. 동탑 축산부서의 책임자는 "이번에 적발된 4톤의 고양이 고기는 전부 폐기 처분하고, 살아있는 고양이들은 건강 검사와 예방 접종을 위해 고양이 농장에 보관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시설에 벌금과 소유주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 개고기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고양이 소비는 1998년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에 관련 지침이 취소됐고, 판매상들은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죽거나 살아있는 고양이들을 '고양이 고기' 로 팔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고양이 고기를 특정 시기에 먹으면 불운은 사라지고,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음월(보름달 뜬 날 때부터 다음 보름달이 될 때까지의 시간)에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불운을 없앤다고 믿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매월 초에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때문에 베트남 곳곳에서는 여전히 고양이 고기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Vnexpress 2023.02.27)

베트남 청년, 캄보디아서 노예 계약에 절친 팔아 넘겨

후잉 타잉 년(Huỳnh Thanh Nhơn, 19세)는 캄보디아 갱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임금 가벼운 노동" 이라며 친구를 속여 인신매매 집단에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고 20일 아세안데일리지가 보도했다. 수사 기관에 따르면, 그는 캄보디아의 조직에서 사람들을 캄보디아로 보내는 행위를 했다.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회사에 도착하여 폭행당했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겁박했으며, 베트남으로 돌아가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했다. 2022년 2월, 그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월급이 700~1,000달러인 컴퓨터 작업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그는 지시에 따라 곧바로 호찌민시로 갔고, 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작업장에서 게임 계정, 가상 거래소를 만드는 방법과 과금을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수사관에게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캄보디아에 있는 것을 알았다. 매일 16시간을 일해야 했고, 잘못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다른 곳으로 팔린다." 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폭행과 다른 곳으로 팔리는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3명의 친구를 속여서 데려왔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고 진술했다. 2022년 3월 말, 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일부 친구들에게 "떠이닝에서 컴퓨터 게임 앱" 을 개발하고 있으며 월 1,700만~2,400만 동(한화 92만 원~130만 원)을 받는다며 친구들을 초대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꾸이년 출신의 18세 청년은 "캄보디아로 팔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을 끌어드린 친구연락하자 그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고 진술했다. 그는 하루에 16~17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일해야만 했고, 전기 채찍을 든 사람이 감시하거나 실수하면 굶주림과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8개월 동안 3개의 회사에 팔렸다. 2022년 9월, 자신의 친척의 도움으로 8천만 동(4백만원)의 몸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른 두 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은 탈출했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 빙딩 지방 경찰국 부국장인 쯔엉 반 퓽(Trương Văn Phụng)에 따르면, 캄보디아를 통해 사람들을 밀입국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는 집단은 대개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가족과 떨어져 온라인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같은 지역 친구 및 지인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 부 국장은 "광고, 채용 정보 또는 친구의 일자리 주선을 경계해야 한다. 가족은 자녀, 특히 인신매매 집단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십 대 청소년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인들과 외국인들이 캄보디아에 속아 들어와 강제 노동을 하는 상황은 수년 전부터 일어났다. 캄보디아 주재 베트남 영사관은 지금까지 800명의 시민을 귀국시켰다. 캄보디아 당국 또한 사기와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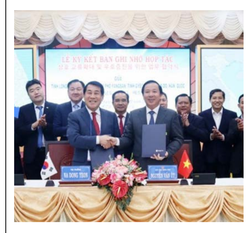
(아세안데일리 2023.02.20)

논산시, 베트남 'AN MINH'社와 딸기 수출 협약식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지난 15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에서 베트남 현지 유통사인 'AN MINH' (대표 응우옌 홍 타이, 이하 안민)과의 수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 발전에 뜻을 합쳤다고 충청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협약은 논산에서 생산되는 300톤가량의 신선 딸기를 안민의 주도하에 베트남 현지 마트에 유통시킨 다는 계획이다. 논산시의 이번 성과는 지난해 안민의 관계자들을 만나 상호간의 투자、협력 의사와 실천의지를 확인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서적 공감대를 다져 온 결과다. 또한 협약 전날에는 룽 비엔에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 해, 앞으로의 교류 방향성과 유통 아이디어를 재차 공유하기로 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안민, 그리고 베트남이 가진 열정적 투자 의지는 논산시 농업인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이자 희소식이 될 것" 이라며 "협약을 계기 삼아 제품과 기술,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하며 공동발전을 이뤄내겠다" 는 뜻을 밝혔다. 안민의 응우옌 홍 타이 대표 역시 "약 3개월 전, 논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 논산 농산물에 큰 매력을 느꼈다" 며 "베트남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논산 농산물을 들여오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자 바램" 이라고 화답했다. 논산시는 안민은 협약을 바탕으로 양측 간의 교류 폭을 넓혀가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안민 관계자를 논산으로 초청해 논산 딸기 생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수출 비전을 한층 밝히겠다는 목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백성현 논산시장을 비롯한 논산시 출장단은 aT아세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하노이 총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현지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속속들이 청취하기도 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출 확대 전략을 고심하며, aT아세안 관계자들과 지역 농업、제조업이 바라볼 지향점에 관해 고견을 나눴다.

(충청뉴스 2023.02.17)

양산시, 동남아시아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경제 교류 강화



양산시와 양산상공회의소가 14개 기업으로 경제교류단을 꾸려 14~18일 베트남 롱안성 등 5개 도시를 방문했다. 이는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며 동남아시아에서 '기회의 땅' 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양산시민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9천여개 이상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양산시 기업도 20여곳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4위 수출상대국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경제교류단은 빈증성에 있는 산업용지 개발 전문기업인 '베카멕스' 를 방문해 현지 산업단지 조성 브리핑을 받은 뒤 기업 입지에 필요한 인력과 교통, 통신, 물류시스템 등 정보를 수집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상담을 진행했다.이어 롱안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양산시와 롱안성 간 우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그동안 투자와 무역으로 다져온 두터운 신뢰 관계를 문화、교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교류하기로 했다.경제교류단을 이끈 나동연 양산시장은 베트남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는 향토 기업인 송월(주)와 에스텍(주), (주)화승의 현지 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직원을 격려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현지 최신 시장 정보와 정착 경험,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산시민신문 2023.02.20)